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2023. Vol.8 No.1

현대사진에 나타난 가족의 개념을 통한 트라우마 (상실의 기억)의 극복에 관한 고찰

낸 골딘(Nan Goldin)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overcoming trauma through the concept of family in contemporary photography

focusing on the works of Nan Goldin

주 저 자 : 박예님 (Park, Ye Nim)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객원교수
honeyleo0821@gmail.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3.1.601

접수일 2023. 2. 24. / 심사완료일 2023. 3. 2. / 게재확정일 2023. 3. 16. / 게제일 2023. 3. 30.

Abstract

Creative activities often act as a tool to overcome trauma for artists. Nan Goldin is an American photographer who was first introduced in New York in the 1970s and 1980s for documenting intimate daily life of herself and friends who were part of bohemian and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minority cultures. Nan started photography to overcome the trauma caused by her sister's death. Leaving home, she formed a new concept of family and recorded their daily life in the form of a diary. Through understanding Nan Goldin's childhood and concept of family, the thesis analyzes narrative techniques, subject matters, and colors used in work. Viewers gain sympathy and comfort in an unfamiliar way through Nan Goldin's daily record.

Keyword

Trauma(트라우마), Family(가족), Loss(상실)

요약

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은 종종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한다. 낸 골딘(Nan Goldin)은 미국의 사진작가로 1970-80년대 뉴욕시의 보헤미안 및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소수 문화였던 자신과 친구들의 솔직하고 친밀한 일상을 기록한 작품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가족의 죽음(언니의 자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사진을 시작한 그녀는 집을 떠나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형성했고 그들의 일상을 일기 방식으로 기록했다. 연구자는 낸 골딘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녀의 사진 미학 형성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녀만의 내러티브(narrative)기법, 작업 소재, 그리고 색감을 분석하였다. 일상 속 친근한 사랑, 욕망, 중독, 이별 등의 주제를 담은 그녀의 작업 특징은 진솔한 묘사와 확고한 정직성이다. 소중한 것들의 기억하기 위한 일상의 기록을 통해 대중은 생소한 방식으로 공감과 위안을 얻는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낸 골딘의 사진 미학 형성 과정

3. 낸 골딘의 트라우마

3-1. 트라우마의 개념

3-2. 낸 골딘의 트라우마와 극복

4. 낸 골딘의 작품 분석

4-1 잃어버린 가족

4-2 확장된 가족; 부족

4-3 내러티브

4-4 색감

4-5 소재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1986년 여름 어패처(Aperture)의 마크 홀본(Mark Holbern)과의 인터뷰에서 낸 골딘은 자신의 일기는 글로 쓴 집필 일기와(written diary) 사진으로 찍은 시각 일기 (visual diary) 두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집필 일기는 대중에게 평생 공개할 의향이 없고 사후에 태워버릴 계획이므로 대중이 접하게 되는 낸 골딘의 사진은 그녀의 삶과 일상을 가감 없이 드러낸 시각 일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낸 골딘이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이었으며 이 당시 미국 사회는 동성애와 소수자가 환영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트랜스젠더가 보스턴에서 길을 걷다 체포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1].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낸 골딘의 사진 주제와 이미지들이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이고 소수자의 항변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였다.

낸 골딘의 사진 속에는 사랑, 이별, 화해, 질병, 죽음, 등의 다양한 희로애락이 존재한다. 분명 첫 느낌은 밝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들은 분명히 희망을 갈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은 생소한 방식으로 관객의 삶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힘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신기하고, 과감하고, 아름답지만 두려운, 마치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은밀한 광경을 봐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낸 골딘의 작업을 통해 그녀가 겪었던 가족의 의미와 트라우마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낸 골딘의 가족, 삶 그리고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사, 에세이, 단행본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낸 골딘의 생각을 가장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인터뷰 기사에 비중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낸 골딘의 트라우마와 창작활동에 내포된 가족이라는 개념의 영향과 둘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낸 골딘은 진정한 가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인간의 트라우마는 생성될 수도, 극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작업으로써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중한 가족이었던 언니의 죽음에서 비롯된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loss of family)’과 그녀가 집을 떠나 만든 ‘확장된 가족(extended family)’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불안하고 어두워 보이는, 다소 시각적으로 불편할 때도 있는 그녀의 작업이 어떻게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위안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낸 골딘만의 내러티브(narrative)기법, 작업 소재 선택의 배경, 그리고 사용되는 색감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낸 골딘 사진미학의 형성 과정

워싱턴의 평범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낸 골딘은 네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교수였고 어머니는 주부였던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조용한 마을의 유대인 지식층이었다.

"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외 지역을 싫어하도록 날 가르쳤다."라고 낸 골딘은 말했다.[2] 전형적인 1950년대 교외의 중산층 미국인이었던 그녀의 부모님이 지닌 보수적인 도덕 기준들 아래 두 자매는 갑갑함을 느꼈다. 언니인 바바라는 매우 자유로웠고 낸은 언니로부터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두 자매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

바바라의 죽음 이후 낸 골딘은 자신도 언니처럼 자살할 수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을 친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녀는 14살이 되던 해 집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된다. 이후 18살에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그녀만의 정체성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2-1-1 바바라 골딘(Barabara Holly Goldin)의 죽음

“1960년대 초 미국 내에서 십대의 자살은 금기어였다. 낸 골딘은 바바라 골딘을 자살에 이르게 한 몇 가지 요인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파괴한 것은 성과 감정 자유로운 분출을 억압하는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였다. 당시 미국은 화를 내고(감정표현이 분명하고)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 범

1) Daisy Woodward, Beyond dependency: The battles of Nan Goldin,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1854 Media, 2023.1.27

2) The Guardian[웹사이트]. (2023.2.15) URL :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4/mar/23/nan-goldin-photographer-wanted-get-high-early-age

주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당시 18살이었던 바바라 골딘은 이러한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워싱턴 DC 교외의 기차 철로에 몸을 누이는 선택을 했다. 그것은 엄청난 의지가 수반된 결단이었다."[3]

[그림 1] Barbara and Nan Goldin holding hands in the 1950s

1964년 4월 낸 골딘이 11살이 되던 해 그녀의 친언니 바바라는 워싱턴 유니온 기차역의 선로에 누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니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낸에게 그녀의 자살은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 하지만 언니의 죽음 후 낸이 목격한 것은 딸의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대신, 사실이 퍼질까 두려워 안절부절못하던 부모의 모습이었다. 침묵과 은폐로 대응하는 부모의 모습에 낸은 분노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는 앞 잔디밭에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사고였다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부정(denial)이었다. 엄마는 우리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골딘은 회상했다.[4]

3) Nan Goldin, [The Ballad of Sexual Dependency], Aperture, 2021, p.8.

4) Naomi Fry, Nan Goldin's Art, Addiction, and Activism in "All the Beauty and the Bloodshed" The New Yorker, Condé Nast, 2022.12.3.

2-1-2 확장된 가족

가장 참담한 비극이 일어났던 중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낸 골딘은 그럴 수 없었다. 정작 피를 나눈 가족과 함께 바바라의 죽음을 건강하게 애도할 수 없음을 인지한 낸은 크게 상심했고, '본인 역시 바바라처럼 죽음을 택하지 않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5] 납득할 수 없는 사고관을 가진 그녀의 부모로 인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를 느꼈던 어린 낸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14살이 되던 해 집을 나온 낸은 트렌스젠더, 동성애자, 마약중독자 (junkie)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찍기 시작했다. 펑크 클럽 현장을 드나들고 위탁 가정과 소수 공동체 사람과 교류하고 지내면서 낸에게는 어느새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생겼다.

다음은 낸 골딘이 인터뷰에서 밝힌 그녀가 생각하는 가족과 가족의 의미이다. 그리고 이들 가족은 그녀의 사진을 채우게 되는 주요 인물들이 된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내 가족이었다. The Ballad of Sexual Dependency에 쓴 글은 가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데이비드(David)였다. 많은 사진에 나오는 수잔 플레처(Suzanne Fletcher)는 매우 마른 여성이다. 그녀의 남자친구 필립(Philippe), 브루스(Bruce), 내가 함께 이사한 언더그라운드 영화 제작자 비비안 딕(Vivienne Dick), 로버트 쿠니(Robert Kooney), 쿠키(Cookie Mueller), 블리커 스트리트 근처에 살았던 샤론(Sharon)이 있다. 사람들이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호주 벨파스트, 베를린, 파리, 네덜란드, 나중에는 도쿄에서 사람들이 바우리(Bowery)에 있는 내 다락방에서 몇 달간 머물렀다. 그리어 랭튼 (Greer Lankton)은 다른 아티스트인 로버트 비텔리(Robert Vitelli), 바비 스웁(Bobby Swope), 내 연인 브라이언 버칠(Brian Burchill)과 함께 이사했다. 나중에 테리 토예(Teri Toye)와 패트릭 팍스(Patrick Fox)가 나와 함께 살았고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는 예술가 시오반 리델(Siobhan Liddell)과 함께 살았다. 내 가족들은 이리저리 이사하긴 했지만, 쿠키(Cookie)와 그리어(Greer)는 죽을 때까지 견고한 사이를 유지했다. 데이비드 (David)를 비롯한 여럿과도 마찬가지였다."[6]

5) Nan Goldin, Op. cit., p.9.

6) Tom Holert, '80s then Nan Goldin, Artforum, Soho Press, 3월 2003년호 VOL. 41, NO. 7 p.235.

낸 골딘은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외부인'이 아닌,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만든 확장된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 '혈통이 아니라 유사한 도덕성, 온전하고 순간을 위해 살아야 할 필요성으로 결속되어 있다'[7] 고 말했다.

3. 낸 골딘의 트라우마

3-1 트라우마의 개념

트라우마(trauma)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으로 정신적 외상의 의미가 크다'이다.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트라우마트(traumat)에서 유래된 말로 그리스인들은 신체적 부상에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이용했지만, 오늘날 트라우마는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정신적인 상처의 뜻을 내포한다.[8]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는 신체적으로 회복이 된 후에도 심리적인 부작용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미국정신의학회가 1980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트라우마(trauma)'를 최초로 질병명으로 등재하였다. 통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이들 중 여성의 20%, 남성은 8%가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트라우마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사고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해지는 현상이므로 트라우마가 재현될 때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흔하며 이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기억되는 특성이 있다.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거나 심한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것을 들 수 있다.

트라우마는 가벼운 정신적 외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단시간에 극복되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타자들의 관심과 교감을 필요로 한다.

3-2 낸 골딘의 트라우마와 극복

낸 골딘이 가진 트라우마는 11살에 맞은 친언니 바바라의 죽음이었다. 당신 어리던 그녀에게 언니는 가족의 구성원인 동시에 더 나아가 본인이 신뢰하고 존경하던 아이돌(idol)이었다. 그녀가 우주를 잃고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그녀는 부모가 언니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고로 바꾸어 이웃에게 알리고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된다. 바바라의 죽음을 은폐하는 부모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느끼며 낸 골딘은 더욱 절망했을 것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낸 골딘은 수많은 방황 끝에 두 가지 방법으로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그녀가 가족을 떠나는 것이었다. 14살이 되던 때 낸 골딘은 혈연관계의 가족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찾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였다. 낸은 그녀의 새로운 가족과 교감하고 그 교감을 사진을 통해 기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된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무섭고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내게 있어 언제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사진은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주었다."[10]라고 고백하였다.

낸 골딘의 사진 작업을 살펴보면 모두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일기 방식의 내러티브(narrative) 형태인데, 이것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에 반항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며 헤로인 시크(heroin chic-약에 취한 듯 피폐하고 퇴폐적인 분위기의 멋을 뜻함)에 대한 숭배 또한 아니다. 낸 골딘이 유년기에 경험한 트라우마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고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즉, 낸 골딘은 본인의 기억을 기록하고 대중과 함께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7) The Guardian[웹사이트]. 2023.2.15 URL :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4/mar/23/nan-goldin-photographer-wanted-get-high-early-age

8) Merriam-Webster Dictionary

9) KDI 경제정보센터[웹사이트] 2023.2.22. URL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21&cidx=12924&sel_year=2020&sel_month=07&pp=20&pg=1

10) The Guardian[웹사이트]. 2023.2.18. URL :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4/mar/23/nan-goldin-photographer-wanted-get-high-early-age

4. 낸 골딘의 작품 분석

낸 골딘은 자신의 첫 작품집, [성적의존에 관한 발라드(The Ballad of Sexual Dependency)]를 친언니 바바라 골딘(Barbara Holly Goldin)의 이름으로 헌정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여러 가지로 나는 언니와 닮았다. 정신과 의사는 나도 그녀처럼 끝날 것을 예언했다. 나는 18세에 언니처럼 죽게 될까 두려웠고, 그래서 14살 때 집에서 도망쳤다. 그것이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재창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었다."[11]

이 사진집은 그녀가 최초로 출간한 사진집으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그녀가 거주했던 베를린, 보스턴, 뉴욕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기록된 개인적인 일기 형태의 내러티브(narrative) 형식의 작품이다. 1985년 뉴욕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처음 공개 되었으며 음악 사운드트랙에 맞춰진 수백 장의 스냅샷 스타일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45분간 재생하는 형태로 전시되었다.

이 사진집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기를 읽도록 한 것이며, 일기는 그녀의 삶을 통제하는 형태이자 모든 세부 사항을 강박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12] 낸 골딘은 '미화 없이 내 세상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다', "이것은 암울한 세상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자각과 성찰의 질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전했다.[13]

이 사진집에 등장하는 이들은 젊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다. 섹스와 마약이 난무하며 불편한 인상의 차림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누드도 예고 없이 등장한다. 그녀가 이런 타부(taboo)를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본인의 새로운 가족을 다시는 잊거나 잃지 않기 위한 끝없는 기록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4-1 잃어버린 가족(Loss of family)

사진집 발라드의 등장인물이자 그녀에게 가족이라 불리던 많은 예술가 친구는 1990년대에 약물 중독과 에이즈(AIDS)로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길즈(Gilles)과 고초(Gotscho)는 게이 커플이었다. 길즈는 낸 골딘의 작업을 지원한 최초의 사람이자 그녀의 작품을 전시한 파리의 갤러리 소유자였다. 그의 파트너 고초는 예술가였다. 이들은 사랑했지만 1년 후 길즈는 에이즈로 죽었다. 길즈의 임종 순간까지 고초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낸 골딘은 죽음의 문턱 끝까지 함께 했던 그들의 사랑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이로써 길즈가 에이즈로 인해 삶을 마감하기까지 파괴적인 과정을 겪었을 때 건강한 파트너 고초로부터의 보살핌의 존재가 있었음을 기록했다.

[그림 2] Gotscho kissing Gilles, Paris 1993

[그림 2]에서 낸 골딘은 죽어가는 애인을 보내기 힘들어하는 고초의 애잔한 키스를 사진에 담아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다. 건장하고 큰 몸집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고초의 외관은 길즈의 눈감은 수척한 모습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고초의 애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질의 앙상하고 힘없는 모습을 통해 대중은 에이즈라는 병의 공포를 간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으나 사실 죽음의 임종을 앞둔 병자들이 일반인들에게 굳이 병든 본인의 모습을 찍히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낸 골딘은 이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겼고 그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진정성 있는 연민의 감정이었다.

비정상적으로 길게 느껴지는 질의 팔 앞으로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이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얇고 가지런한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다. 그의 피부는 혈관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지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구겨진 이불 위에 얹어져 있는 인간의 신체 일부를 찬찬히 뜯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목숨이 기력을 다해감을 유추할 수 있어 더욱 애잔하다[그림 3].

11) Nan Goldin, Op. cit., p.9.

12) 전게서(Ibid)., p.22.

13) 전게서(Ibid)., p.22.

[그림 3] Gilles' arm, 1993

[그림 2], [그림 3]을 통해 대중은 작가의 내러티브를 알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강력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 죽음 속으로 사그라지기 직전의 나약한 육신의 모습 뒤로 견고하게 지속될 강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미지를 통해 낸과 고초는 길즈의 마지막 모습을 아로새겨 간직하고 살 것임을 알 수 있다. 잃어버린 가족이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4-2 확장된 가족; 부족(Extended family; tribe)

[그림 4] Picnic on the Esplanade, Boston 1973

낸 골딘은 어렸을 때 언니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의 무능력함에 절망하며 혈연의 가족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가 찾은 것은 죽은 언니와 본인이 떠난 부모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본인의 '부족(tribe)'이라 불렀고[14] 이 부족들은 일반적인 친구라는 개념을 넘어선 확장된 개념의 가족이자 그녀의 새로운 전부였다(그러므로 낸의 부족이라는 지칭은 곧 가족을 의미한다). 부족 사진[그림 4] 속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밤이 아닌 낮 자유롭게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얼핏 구분이 잘되지 않는 낯선 모습을 한 사회적 소수자집단인 그들은 다양한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로 뭉쳤으나 사실 각자의 사연을 통해 이미 한번 가족의 개념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어렵게 재형성된 새로운 가족이라는 틀은 더욱 서로를 끈끈하게 다지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의 원 안에 둥그러니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인다.

이 시기는 동성애가 인정받지 못하는 1970년대였으나 이들은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와 일반인의 삶을 당당하게 누리고 있다. 함께여서 더욱 두려워 보이지 않는 듯하다. 대중은 어느새 견고한 유대감으로 단단하고 안전해 보이는 저들이 속한 집단에 끼지 못한 부러움으로 멍하게 그들을 관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가 소외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소외된 것이다."라고 낸 골딘은 말했다[15].

4-3 내러티브(narrative)

동이 터오는 새벽인지 해가 지는 노을인지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한 집의 침실 안 광경이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 그는 곧 이 방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다. 헤어짐을 예고하는 듯한 분위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관계의 끝자락의 선 사랑의 유한성과 씁쓸함을 제공한다. [그림 5].

사진 속 낸 골딘과 그녀의 연인 브라이언은 카메라가 없는 듯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낸을 등진 채 무관심함이 드러나는 남성의 차가운 등판은 따뜻한 색감의 노란색 배경과 대조되고 그를 빤히 응시하고 있는 낸의 눈빛과는 거리감을 생성한다.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도 대화도 없는 이미지의 느낌은 그야말로 냉소적이고 싸늘하다. 아쉬운 듯 바라보는 낸의 눈빛은 간절함과 갈구함으로 차 있다.

14) Studio International[웹사이트] 2023/2/18 URL : http://www.international.com/nan-goldin-the-ballad-of-sexual-dependency-review-moma

15) Aperture[웹사이트] 2023.2.22. URL : https://aperture.org/editorial/why-the-ballad-of-sexual-dependency-endures-in-the-twenty-first-century/

[그림 5] Nan and Brian in Bed, New York City, 1983

낸과 브라이언은 삼 년을 함께 했다. 한 남자와 함께 있는 순간조차 남성에 관한 욕망과 갈증이 그대로 드러난 낸의 표정을 보고 있자면 안정되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함 속에서 느껴지는 불만족과 불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낸 골딘은 케이블 릴리스를 사용하여 셔터를 눌러 연출 없이 촬영했다. 거짓 없는 낸의 내러티브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관중은 그녀를 깊이 공감하게 된다.

4-4 작업 소재(Subject)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남자와 깊은 관계를 지속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 적응했으며 상호의존적이었고 행복했다. 그를 의존했고 숭배했으며 만족감과 안전함을 느꼈지만, 문득문득 갇혀있는 밀실 속 공포 같은 것을 느꼈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중독된 것이었다. 끊임없는 욕망이 성적 강박관념과 합선되어 결국 폭발했다. 저 날 나는 거의 눈이 멀도록 맞았다. 피투성이가 되도록."[16]

구타당하고 한 달이 지난 후 낸 골딘은 사진을 통해 그가 겪었던 폭력을 공개했다[그림 6]. 아무런 가감이 없는 완벽한 기록으로서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의 왼쪽 눈은 심하게 피멍 들어 있으며 오른쪽 눈 아래에는 짙은 타박상의 흔적이 엿보인다.

16) Nan Goldin, Op. cit., p.8.

[그림 6] Nan One Month After Being Battered, 1984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본인의 모습을 촬영할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낸은 이런 순간도 그대로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의 수단으로 본인의 모습을 찍었다고 인터뷰에서 답했다.

"남자친구가 나를 때렸던 한 달 후 자화상을 찍었던 것도 이 일을 미화해서 회상하지 않고 명확하게 기억해 내고 싶어서였다. 나의 자화상은 나의 경험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17]

낸 골딘은 이때 당한 폭력으로 자칫 왼쪽 눈을 실명할 위기를 맞았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담담하게 사진에 담음으로써 미화 없는 자서전적 일기의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상에 젖지 않고 명확한 기억으로 간직하기 위한 그녀의 결정이었다.

4-5 색감(Color tone)

한 여성이 자신을 스스로 감싸 안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잠시, 묵직하고 든든하게 그녀를 감싸 안은 것은 곧 여성이 아닌 남성의 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와 푸른 드레스를 입은 여성 머리 아래로 살짝 보이는 새하얀 피부는 플래시 조명에 반사되면서 더욱 하얗게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을 한껏 더 위태롭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연출한다. 남성의 팔 안에서 평온을 느끼는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그림 7].

17) I'll be your Mirror, Exhibition catalogu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1996, p.36,, 319, 198

[그림 7] Nan Goldin, The Hug, New York City, 1980

푸른색 리본 드레스는 이 사진에서 유일하게 색감의 정보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된 부분이다. 방의 실내 색감은 원래는 흰색이었겠으나 플래시의 조명이 여성의 파랑 드레스와 유사한 색감으로 반사되면서 급박하고 우울한 감성을 자아낸다.

비록 뒷모습을 찍어 표정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색감은 여성의 정신상태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인 것을 부각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낸 골딘의 작업 속 색감은 촬영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 아닌 그녀가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보여주는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색감은 낸 골딘이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시의 상황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진을 찍었던 여성의 드레스가 파란색이었던 것이 아니다. 낸 골딘은 간절하고 위태로운 여성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5. 결론

연구자는 트라우마가 어떤 모습으로 낸 골딘의 작품에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승화 및 극복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내재된 트라우마의 표현 방식을 시작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교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동반되는 또 다른 가족의 개념을 연구한 결과, 가족의 개념은 반드시 혈연의 절차를 따른 전통적인 방식을 수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타자와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인간의 트라우마는 생성될 수도, 극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낸 골딘은 작업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표현하겠다는 결의를 집착에 가까운 신념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부모에게서 느꼈던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부터 반면교사 하여 본인은 그들같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이었을 것이다. 이 일념은 낸 골딘이 일반인은 찍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순간에서도 충분히 셔터를 누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남의 시선보다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더 큰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낸 골딘의 사진집에서는 '확장된 가족'의 희로애락을 관음하는 과정에서 숨기지 않았기에 더욱 간절하게 드러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토닥이고 위로한다.

큐레이터인 귀도 코스타(Guido Costa)는 낸 골딘의 사진에 나오는 친구나 연인의 모습, 그녀가 다녀갔거나 머물렀던 장소들을 볼 때, 우리의 조그마한 과거사들이 겹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고 그 이유는 그 사람들과 장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8)]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던 낸 골딘의 작업 소재는 그녀가 일관되게 지키고자 했던 사진의 정직한 기록을 위해 타자의 인식을 포기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렬한 색감과 플래시 조명의 사용은 그녀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가끔 플래시의 사용으로 인해 색감이 흐려지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 흐려진 색감은 흐려진 대로 그날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요소로 그 역할을 다했다.

18) 귀도 코스타, 낸 골딘 Nan Goldin, 열화당, 2019, p.15

낸 골딘은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교감할 수 있는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가 가장 아꼈던 친언니 바바라를 잃은 후 부모와는 트라우마를 교감하는 데 실패했고 이것은 그녀가 가족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롭게 형성한 그녀의 '확장된 가족'은 마침내 낸 골딘에게 치유와 평화를 제공했고 그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 잊지 않기 위해,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쉼 없이 사진기를 들었다. 작업 속 고스란히 나타난 골딘의 더 할 수 없는 진솔함과 간절함은 대중의 마음을 울리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녀의 사진이 계속 보고 싶어지는 이유는 우리 역시 끝없이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귀도 코스타, 낸 골딘 Nan Goldin, 열화당, 2019
2. Nan Goldin, The Ballad of Sexual Dependency, Aperture Foundation, 2011
3. Nan Goldin: I'll be your Mirror,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1996
4. Daisy Woodward, Beyond dependency: The battles of Nan Goldin,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1854 Media, 2023.1.27.
5. Naomi Fry, Nan Goldin's Art, Addiction, and Activism in "All the Beauty and the Bloodshed" The New Yorker, Condé Nast, 2022.12.3.
6 Tom Holert, '80s then Nan Goldin, Artforum, Soho Press, 3월 2003년호
7.https://aperture.org/editorial/why-the-ballad-of-sexual-dependency-endures-in-the-twenty-first-century/
8.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 21&cidx=12924&sel_year=2020&sel_month=07&pp=20&pg=1
9.https://www.indiewire.com/2022/09/all-the-beauty-and-the-bloodshed-review-nan-goldin-laura-poitras-1234758191/
10.http://www.international.com/nan-goldin-the-ballad-of-sexual-dependency-review-moma
11. merriam-webster.com
12.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4/mar/23/nan-goldin-photographer-wanted-get-high-early-age